5월 9일(월) / 욥1-3

▶**내용요약**: 욥기 1장은 욥에 대한 소개로 시작하는데 그는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의인이다. 하지만 사탄이 그를 시험하면서 재산과 자녀 모두를 잃어버린다. 이러한 상황에서 욥은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놀라운 고백을 하면서 결코 말이나 원망으로 범죄하지 않는다. 2장에서 사탄은 욥에게 두 번째 시험으로 그의 몸에 종기가 나도록 해서 괴롭히고 그의 아내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는 저주를 퍼붓는다. 고통당하는 욥을 위로하고자 그의 세친구가 방문한다. 3장에서는 욥이 자신의 출생을 저주하며 죽음 이후의 영원한 안식을 갈망한다.

▶**질문**: 욥을 위로하고자 방문한 세 친구의 이름은 무엇인가?(2장)

▶**생각하기**: 욥은 모든 재산과 자녀들까지 잃어버리는 고통을 당하면서도 고백하기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1:21)라고 한다. 놀라운 신앙의 고백이 아닐 수 없다. 우리는 지금 어떤 문제로 하나님께 불평하고 있는가? 우리에게 주시기도 하고 거두시기도 하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욥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5월 10일(화) / 욥40-42

▶**내용요약**: 40장은 39장에서 여러 동물들에 대해 지혜를 욥에게 물으셨던 하나님이 답변을 촉구하신다. 이를 통해 욥은 하나님과는 감히 대면조차 할 수 없는 우둔하고 미약한 존재임을 깨닫게 된다. 41장은 리워야단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함과 인간의 나약함이 대조된다. 42장은 하나님의 책망에 대해 욥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인정한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욥에게 이전보다 갑절의 복을 허락하신다.

▶**질문**: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 으뜸으로 소같이 풀을 먹고 힘은 허리에 뚝심은 힘줄에 있다고 묘사하는 동물은 무엇인가?(40장)

▶**생각하기**: 욥은 결국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닫고는 고백하기를,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뵙나이다"(42:5)라고 한다. 그에게는 고통의 시간이었지만 오히려 그 시간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였다는 고백이다. 욥의 고백처럼 우리도 고통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을 체험할 수 있다면... 그것은 축복의 시간일 것이다.

5월 11일(수) / 시1-4

▶**내용요약**: 시편 1편은 인생을 살아가는 두가지 방식을 알려준다. 먼저는 의인의 길로 복 있는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인 반면 악인의 길은 멸망과 심판에 이른다. 2편은 메시야 시로 불리며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기록된다. 3편은 다윗이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로 환란 가운데 하나님이 도우실 것을 간구한다. 4편은 하나님의 택하심과 보호하심에 대한 다윗의 신앙고백을 볼 수 있다.

▶**질문:** 복 있는 사람이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게 되는 것은 무엇인가?(1편)

▶**생각하기**: 다윗은 고백하기를,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3:6)고 한다. 가장 사랑하던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자신의 신하들과 백성들이 자기에게 등을 돌려버린 상황에서 그는 두려워할 대상은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임을 고백한다. 우리도 여러 문제 가운데 정말 두려워해야할 대상은 사람들이 아닌 하나님임을 기억하자!!!

5월 12일(목) / 시5-8

▶**내용요약**: 5편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아침에 기도를 드린다. 아침이라는 시간을 통해 그가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기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6편에서 다윗은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심판을 아는 자들이 가지는 극심한 고통을 언급한다. 하지만 결국에는 고통이 찬양의 노래로 바뀌게 된다. 7편은 억울한 비난과 핍박을 당한 다윗이 하나님께 드리는 탄원의 기도이다. 8편은 다윗이 하나님의 위대함과 영화로우심을 찬양하는 시이다.

▶**질문**: 괄호를 채우세요. "나의 ( )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7편)

▶**생각하기**: 다윗은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6;6)라고 고백한다. 극심한 고통의 순간을 잘 표현하는 구절이다. 슬프고 힘들 때 자신의 아픔을 숨기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다윗의 모습은 은혜가 된다. 여러분은 어떤 어려움과 슬픔을 당하고 있는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5월 13일(금) / 시9-12

▶**내용요약**: 9편은 다윗의 원수들과 악인들을 공의로운 판단으로 심판하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승리의 노래이다. 10편은 9편에서 시작된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로 기록된 시형식의 후반부로 악인의 소행을 고발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호소한다. 11편은 하나님이 의인들의 피난처요, 방패가 된다는 사실을 노래한다. 12편은 악인들이 날뛰는 불편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안전하게 경건한 자들을 지키며 구원하실 것을 노래한다.

▶**질문**: 다윗이 볼 때 악인들이 얻는 잔의 소득 3가지는 무엇인가?(11편)

▶**생각하기**: 악인들은 고난당하거나 고통 가운데 있는 의인들을 향해 하나님은 감찰하지 않으신다(10:13)고 말한다. 다윗이 볼 때 이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악인들의 특징이다. 다윗은 자신의 아픔과 고통을 하나님이 직접 보고 감찰하신다고 확신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한다.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결코 홀로가 아니며 외롭지 않다.

5월 14일(토) / 시13-16

▶**내용요약**: 13편은 다윗이 가장 어렵고 힘든 시기에 쓴 찬양으로 자신의 고통을 그대로 토로한다. 14편에서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고 하신다. 15편에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의인들이 어떤 삶을 사는지 그 특징을 보여준다. 16편은 다윗이 하나님 안에 있는 자가 누리는 은총과 축복이 무엇인지를 열거한다.

▶**질문**: 괄호를 채우세요. "땅에 있는 ( )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16편)

▶**생각하기**: 13편을 시작하며 다윗은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라고 물으며 자신의 고통을 탄원한다. 인생을 살면서 견디기 힘든 고통의 시간을 지나야하는 때가 있다. 우리는 이때 다윗처럼 어느 때까지 고통과 아픔을 견뎌야 하며 혹시 하나님이 나를 잊은 것은 아닌지 반문하기도 한다. 이 때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시다는 사실이다. 고통가운데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자!

5월 15일(일) / 시17-20

▶**내용요약**: 17편에서 다윗은 자신의 정직함을 탄원하고 구원을 호소하면서 결국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 주님의 얼굴을 보게 될 것을 확신한다. 18편은 다윗이 사울과 같은 모든 원수들에게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날에 그 구원을 찬양하며 감사를 드리는 노래이다. 결국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신다고 담대히 고백한다. 19편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신을 알리고 사람들을 가르치기 위한 두 책이 있음을 말한다. 하나는 자연이라는 책이며 또 다른 하나는 성경이라는 책이다. 이 두 책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과 능력을 깨닫게 된다. 20편은 전쟁터에 나가는 왕을 위해서 백성들이 드리는 기도이다. 자신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 특별히 지도자를 위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는 시편이다.

▶**질문**: 사람들이 병거와 말을 의지할 때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무엇을 자랑해야 하는가?(20편)

▶**생각하기**: 전쟁터에 나아가는 왕을 위해 백성들은 "네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네 모든 계획을 이루어주시기를 원하노라"(20:4)고 기도해주면서 왕이 가져올 승리의 소식으로 인해 백성들은 개가를 부를 것이라고 한다. 왕과 백성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의 운명공동체임을 드러내주는 대목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동체로 허락하신 함께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자. 그들의 행복과 기쁨이 우리의 행복과 기쁨임을 기억하자.